

여론매체

사설

강군의 죽음은 예고된 구조적 살인 노정권 퇴진투쟁은 국민과 함께 해야

지난 26일 경찰의 광폭한 폭력 앞에 아까운 우리의 젊은 하나가 쓰러졌다. 이 어 29일에는 이를 분개하며 또 하나의 젊은이 불길속으로 자신을 던져 버렸다. 박정철 열사와 수많은 박정철 열사, 의문 많은 동맹의 전경의 죽음, 그리고 강경대군의 죽음에 대해 언제나 정권은 온갖, 축소, 무마하려 했고 또한 언제나 우리는 이것에 불허 현상으로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분노하다 잊혀져 왔다. 이제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강경대군이 죽음으로 우리 앞에 섰다. 우리 모두는 박정철 열사의 죽음 당시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박정철이 나타나서는 안된다'라고 다짐했다. 그 다짐은 고문이 아닌 이 땅에서 죽어간 한 젊은이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온 국민의 참여와 투쟁을 이끌어 냈고 5공을 무너뜨렸다. 그때 우리는 강경대군의 죽음을 단순한 백골단의 최야포에 의한 것보다 한 젊은이의 죽음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또한 이 죽음의 본질에 분노하고자 한다. 강경대군의 죽음은 명백히 반인륜적 폭력정권하에서의 구조적 살인이다. 6공이 들어선 이후 반정부시위는 폭력적 진압으로 일관해 왔으며 '법외의 전쟁' 선포 이후 그 폭압성은 극에 달했다. 국민적 지지가 반 10%미만의 상황에서 그들의 정권유지수단은 허울썩은 '공권력' 이름을 빌린 탄압뿐이었던 것이다. 이는 온국민이 분노하고 참여한 이번 연대에서의 비폭력 평화시위와 전국에서의 규탄집회를 무자비한 물대포와 최야포로 저지하며 시위화산을 막으려 발악하는 모습에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강경대군의 죽음은 비도덕적 정권하에서의 예고된 살인이었다. 노정권은 이 사건 이후 내무부장관을 겸직했고 관련된 4명 구속, 노태우총리 사파리회의의 이렇다할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 수많은 의문사, 동의대에서 전경의 죽음, 그리고 강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죽음이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자행된 것임에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말단 직급에 개관 책임이 전가되었다. 씩씩 뿌리내린 열매가 열리지 않고 가지가 갈라져 하는가. 노정권이 아닌 한 또다른 젊은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은 필연이다.

열린글터

본사 여론매체는 동약의 모든 주체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글, 만화, 사진 등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실리는 원고에 대해 소정의稿酬도 지급합니다. 각 단대 모니터 요원(편집부장)을 통하여나 신문사로 직접 가져오시면 됩니다.

조교들의 용납할수 없는 학생회 탄압

우리 동생들은 신규교수채용 문제로 이사장실까지 접거를 하는 등 지난해부터 지난한 투쟁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학생회와 뜻을 달리 하신 선배님들과의 마찰이 심해지면서 이 문제로 대자보가 쪼개져나가는 등 강경대원으로까지 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학생회는 4-19 기념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대성리로 연합 모교지를 가계되었다. 그러나 4-19에 대한 의의를 공유해야했기에 함께 토론을 한 후 특유의 시간과 가지고 캠프놀이를 하는 등 순조롭게 일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방으로 모두 들어간 후 조교가 학생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들을 불러 '왜 MT를 와서 4-19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에 타고 있는 장악을 학생회장 임에 주시라는 등 간부들을 구타했다. 그리고 다음날 '어제일은 시작일 뿐이다. 내 성질 건드리면 죽인다'는 협박을 하고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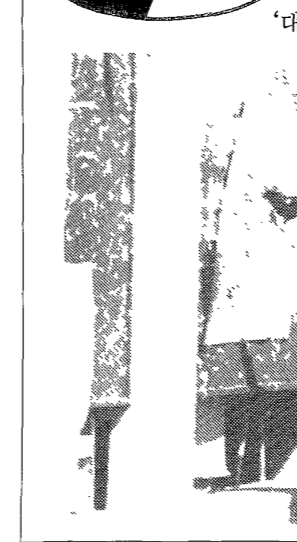
누가 강경대군을 죽였습니까?

스스로 자초한 노정권의 전면적 위기

이젠 목숨 건 투쟁만이 우리의 살길

지난 4월26일 '김세진·이재호 열사 추모식 및 반미 구국출정식'에 참여한 나는 믿기지 않는 비보에 가슴을 떨어야 했다. 명지대내 강경대 학우 시위도중 백골단의 최야포에 맞아 사망. 바로 내 가슴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예상한 결과였다. 요즘 어느때 보다도 악랄해진 백골단의 진압을 우리는 자주 대해왔다. 바로 2, 3미터 앞에서 직격탄을 쏘아대지 않나, 최야포를 마구 휘둘러 대지를 앓나, 게다가 돌맹이 하나 들지 않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기까지 한다. 요즘처럼 신문보기가 가슴떨리는 때가 있었는가? 120일 전투다, 엔데에 작전이다 하는 미제의 노골화된 전쟁책동, 주위의 소나무가 말라

초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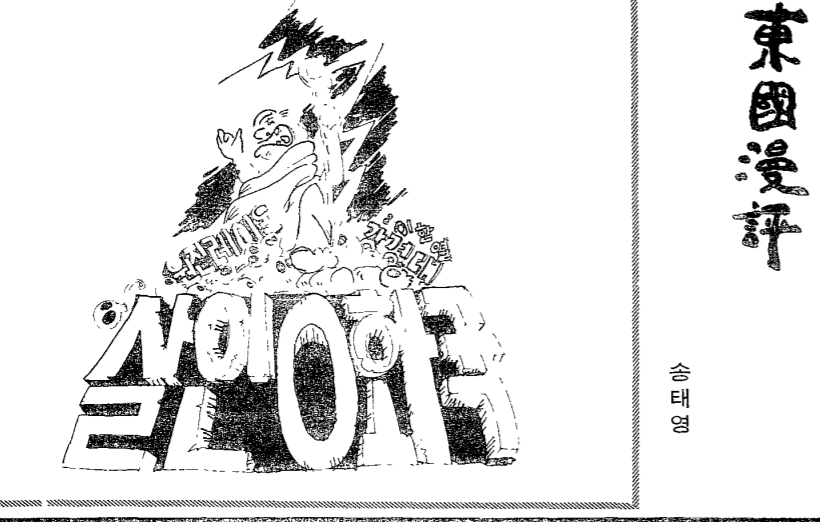


장미란 (사법대 수학교육과) '대자보를 떼는 전쟁'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4명의 동약인(김봉준, 이규민, 강우원, 백종민)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는 국가보안법의 완전철폐와 양심수 전원자유를 요구하며 4월15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작년 7월경 하계방학을 틈타 반미구국선진회는 초대사진을 테이프 9명의 동약인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로 구속하는가 하면 동계방학중에는 전민학원 시위를 테이프 12명의 학생회 대중투쟁을 침착한데 가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자민중·조국통일추진그룹사건은 바로 자명한 백만장년학도의 조직 전대회의 노태우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송갑석 전대회의 장남을 비롯한 전대해협김갑부를 학우들, 그리고 4천만민중들과 분리·이간하려는 조작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박철민 같은 사람은 이복을 마음대로 뒀다갔다 하면서 범민련 대표들은 해외에서 만났다고 구속하는 것은 행형의 원칙을 강조하는 노태우정권의 발언에도 위배되는 자신들의 모순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조국통일을 소리높여 외칠수록 국가보안법의 족쇄는 더세어지고 감옥은 점점 꽉 차고 있다. 캄캄하여 방안에 열쇠공 놓고 문이 잠겼을때, 열쇠공질로 보초기를 요구할때, 말치니 공구등을 빌려야 해도 상습적인 자존심을 문개버리는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다. 또한 기속사측은 기속사측을 위한 기속사가 아닌 진정으로 학우들을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오 기 환

대중투쟁제도 하나의 투쟁그릇

종파적이라 때도는 말아야

지난 4월17일자 동대신문(제 1072호)을 읽고 나서 조금 씩 씩한 기분이 들었다. 분과파 어느 학우가 쓴 '대중투쟁제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대한 내용 때문이다. 나는 대중투쟁제를 지지하는 학우로서 대중투쟁제 제기배경, 기능성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밝히고자 한다. 정초부터 시작된 국회의원의 뇌물, 유, 독점재벌과 노태우정권과의 수사비리, 기만적인 기초의회 분리선거, 재벌의 패물방류, 대우조선·현대자동차노조등에 대한 탄압, 박노해등지의 구속, 대기업 연대 간부회의탄압등이 무뎠을 때도 열거할 수도 없이 노태우정권의 부패·부정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계속적인 학원침탈등. 현 정치체제는 경제적 대립과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급격하게 고양되어 가고 있음에도 우리 청년학생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가열차게 투쟁에 임하고 있지 못했다. 노태우정권은 누구보다도 현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다. 지금 민중들의 의식이 얼마나 고양되었는지, 민중들이 얼마나 노태우정권의 부패·부패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지를. 전선은 우리 청년학도들에게 투쟁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능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회는 정기총회, 학원MT, 그의 많은 학생회의 사업으로 매몰되어 있다. 또한, 각과 학생회와 주체인 사회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회부가 투쟁을 조직하고 학생회의 투쟁력을 담보해나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기간의 우리의 투쟁을 비판하면서 투쟁을 조직적이고, 목적의식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 대중투쟁제가 필요하다. 대중투쟁제는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투쟁의 기능성, 집행의 전문성, 안정성, 그리고 지도내용을 담보해낼 수 있는 조직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종파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사회부와 의 관계속에서 내용이 보지 못하고 형식만을 따지는 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 학생회 속에서의 놀이나 취미에 대한 소모임을 인정하면서도, 투쟁의 열의를 결집하고자 제안하는 대중투쟁제를 인



비리·부패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지를. 전선은 우리 청년학도들에게 투쟁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능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회는 정기총회, 학원MT, 그의 많은 학생회의 사업으로 매몰되어 있다. 또한, 각과 학생회와 주체인 사회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회부가 투쟁을 조직하고 학생회의 투쟁력을 담보해나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기간의 우리의 투쟁을 비판하면서 투쟁을 조직적이고, 목적의식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 대중투쟁제가 필요하다. 대중투쟁제는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투쟁의 기능성, 집행의 전문성, 안정성, 그리고 지도내용을 담보해낼 수 있는 조직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종파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사회부와 의 관계속에서 내용이 보지 못하고 형식만을 따지는 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 학생회 속에서의 놀이나 취미에 대한 소모임을 인정하면서도, 투쟁의 열의를 결집하고자 제안하는 대중투쟁제를 인

강수정

(사법대 역사교육과)

학생 위한 기속사의 역할 다했으면

타지에서 이곳 동국학원을 배움과 학문의 터전으로 삼기 위해 공부하는 학우들중, 기속사에 적응 못한 학우들은 전체 학우중에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속사의 경우, 자취나 학습을 하는것보다 좀 나은 시설공간에서 저렴한(?) 식비부담과 관리비의 부담을 겪고 있다. 또한 여학생 기속사의 개관으로 보다많은 학우들이 기속사에 입사하는 등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것 같다. 하지만 5백여명이라는 학생들의 불만과 항의의목소리를, 특히 많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일들이 있다. 식비와 예산내역의 공개라는

이세영

(제23대 자주적 우리학생회 인간사관 인권사범부)

글하지마십시오. 조수수배가 떨어진 대환이, 정기, 구속형, 종화형, 호성형, 동일이까지 모두모두 정권의 개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밤에 갈데없으면 밤에 오세요. 재워드릴게요. -백시한 정목이가 함께합니다. 지난해 대구시경 타격으로 적들에 의해 우리결을 떠났던 우리의 관공도소 학생은 4월 새벽6시에 순천교도소에서 1년간의 징역살이를 마치고 우리결에 옵니다. 더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형을 맞이하려 집니다. -사랑과 함께 깨우려다가 배워서 납품합니다. 배움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경우 향토야학에서 자원봉사교사를 모집합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찾습니다. 전화문의 3-5300으로. -용인같은 가슴을 지닌이가 됩시다. 지금 이순간 여유로 다가가 날 부르는 소리, 멋진 형상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많이 참가해주세요. 오 늘부터 3월 까지 미술학과 조소공예에서 '백상조각'을 엮습니다. -백상화장 정봉준 우리도 동문화한다. 긴 북바람의 시간은 가고 드디어 이사벨에서도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는 2일 오후5시 '학생회' 학생회에서 사영이 찬찬한 만남을 가집니다. 오천원과 함께 -동문화장 백진근급모임 불교학생회 13기를 '일각이아름답다'같은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모두 모여주세요. 불기2535년 5월1일 오후5시 동아리방으로 -아이타볼 -워하여/ 부드럽게 절도있는 운동 유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도의 재건을 위해 모입니다. 내일12일 오후5시에/ -동국유도 회장

목격골

강경대 열사의 시신 부어안고 식민의 벽을 사르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 자주·민주·통일의 세세상에 열사의 시신을 묻자!!

- 폭력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기대를 빼앗기면서도, 경계를 보내면서도 승리가 한점 불꽃으로 타오를 때에도 우리는 결코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안다. 영구분단·정기집권·민중수발 폭력살인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제7대 야간강좌 총학생회
- 경대를 두번죽이는 비폭력투쟁, 책임자처벌 반대한다. 살인정권, 폭력정권, 노태우정권 완전타도하자. -공공에서 과학으로 민족진단 사회대학생회
- 동지! 이제 결투다. 반동권력의 폭압속에 우리 강대동지의 젊음 잃었지만 이젠 아니요. 고이 갈수없는 한들이지만 전면적인 노태우 타도투쟁으로 민중중심의 함성으로 그대 젊음을 태우라. -민중문화의 사랑탑 제7대 동아리연합회
- 경대행을 때려죽인 노태우정권 타도하고 임시민주정부 수립하자! 민생관련 민주압살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공과대 학생회
- 우리 700여 이과대학우들의 결의를 모아, 강경대학우의 뜻을 이어받아 노태우 정권을 반드시 타도할 것입니다. 일회용 정권 노태우정권 타도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반전반핵 제7대 이과대학생회
- 열사여! 투쟁으로 함께 하라니, 우리들의 투쟁을 지켜보소서. 굽혀지지 않는 청년의 기개로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수복된 조국 강토에 부활하시어!! -투쟁으로 열사의 죽음을 맞이할 제23대 통일문과대학생회
- 열사의 뜻 이어받아 노태우정권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고통치는 민족의 맥박 제23대 수석경상대 학생회

동약! 광장

- 학우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제12차 중앙 운영위원회) -매:4월29일 밤12시 -장소:총학생회 회의실 -참석자:총학생회장, 농장, 경장, 불장, 야장, 사법장, 야장, 총대의원장, 문장, 기획부장, 학자부, 법장(지각:사과대 부단) -안건:1. 민중의례 2. 총노선 채택 3. 총노선 활동 ※ 총노선, 조직노선은 채택이 되었고, 투쟁노선의 이견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견사항은 -민주대연합에 의한 민주정부나, 민중대연합에 의한 임시민주정부나 -보수야당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특별위원회에 대해 -조국통일투쟁의 올해의 과제에 대해 위의 사항을 새벽4시까지 논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총학생회의 총노선(총노선, 투쟁노선, 조직노선)이 채택되었습니다. 이견을 내신분들은 투쟁노선만 제출했습니다. -제23대 총학생회
- '자주선언'찬양호를 축하하며 선전부장을 무지마치게 사방잡고 어느학우가 선전부장인 무궁한 발전과 소식이 밝힌이 힘차고 활기차게 우리의 삶과 투쟁을 노래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쁜 짱
- 친자의 생일을 축하하며... 친아! 너의19번째 생일을 맞아 너를 낳아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보기라. 너를 낳으신 그 해산의 고통을... -규식 홍상
- 총학생회 긴급제안 (일정) 5월1일 노동절 기념집회 세계 102주년 노동절 기념 및 살인만행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5월 투쟁 선포식 2일 총 선전전의 날, 파도론의 날 강경대열사 추모를 위한 학원분임장모임(91학원 대표자 모임) 3일 살인정권 심판 결의대회(도서관앞) 4일 전경, 백골단 해체와 공인내각 총사퇴를 위한 범국민대회, (시청) 6~7일 학내 선전의 날(아침선전전, 강의실선전 결의) -각 단위 분임회의 날 -5-9동약비상총회와 가두시위 속에서 나는,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강경대열사의 뜻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강경대열사 장례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것 8일 동교투쟁을 힘차게 결의합시다!!! -개교 기념식 및 강경대열사 추모공연 -각 단대, 소모임별로 결의대회를 갖고 전체 간부회의의대 이후 철야농성 9일 대대적인 가두시위, 공연 시국통곡을 위한 동약인 비상총회 (실천사항) 1. 리본달기 2. 분향소에 분향하기와 연대 중앙 분향소에 단대별로 분향을 합니다. 3. 파도론회를 힘차게 진행합니다. -월요일 태어난 성희와 정희의 생일을 축하한다. -세세대 유리학과 잘나가는 90 생대위
- 대학에 들어오니 91학원, 그것도 여학생이라고 대접이 굉장하다. 좋은 영화 한편 보여줬다고 죽음도(?) 불사하는 남자들이 수심, 수백인제 해어질 수도 없다. 이들에게 C-C(Combat cell)그분들께 고마움과 격려를 보냅니다. -91학원 어느 여학우
- 대학이 들어오니 91학원, 그것도 여학생이라고 대접이 굉장하다. 좋은 영화 한편 보여줬다고 죽음도(?) 불사하는 남자들이 수심, 수백인제 해어질 수도 없다. 이들에게 C-C(Combat cell)그분들께 고마움과 격려를 보냅니다. -91학원 어느 여학우
- 대학이 들어오니 91학원, 그것도 여학생이라고 대접이 굉장하다. 좋은 영화 한편 보여줬다고 죽음도(?) 불사하는 남자들이 수심, 수백인제 해어질 수도 없다. 이들에게 C-C(Combat cell)그분들께 고마움과 격려를 보냅니다. -91학원 어느 여학우

학술

학생회 강화의 방도 '소모임'

대중적 토대 구축할 '삶의 터전'

○... '학생회에 사람이 없다' '집회 참석인원...○
○...이 너무 적다'라는 말들이 학생회 간부들...○
○...사이에서 나온다. 무엇이 문제였나. 학...○
○...우들의 자주성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사...○
○...업이 이제 필요할 때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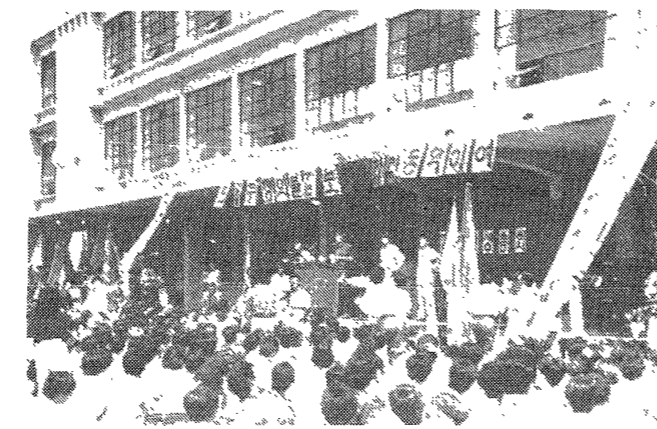
1. 머리글

소모임이란 얘기들은 무수하게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소모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만 소모임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일반학우는 물론 학생회간부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소모임은 원칙과 중심을 명확히 세우고 학우들과 함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조직이 되어야만 학생회에서 든든히 자리잡을 수 있다.

소모임이란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을 말한다. 가장 낮은 진부부터 정치적 지향을 갖는 모임까지를 포괄

적, 대중적 토대를 굳건히 세워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의제제배하의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의 특수한 조건속에서 제기되는 변혁운동의 장기성·견고성·복합성으로 인해 조직건설은 끊임없는 대중과의 결합과 대중적 지지·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존재할 수 있다. 특히, 폭압적인 탄압이 계속되고 진행되는 조건속에서 조직을 건설한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모임을 대중에 근거해서 튼튼히 만들어낼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자주적 노동조합의 건설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산하에 엄청난 소모임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면서 이 소모임에 삶의 무게를 싣고 생활의 터전으로 여기며 강고



다. 명확히 진단해 본다면 학생회가 학우들과 함께 생활의 일치를 이루고 토대를 굳건히 세워내지 못함으로써, 다수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집약시키지 못함으로써 즉, 다수의 대중을 힘겨게 결합시키면서 대중적 힘으로 풍만이라는 예측을 타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제

의 문제를 진단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층으로는 그들이 추구하는 분열주의 정책속에서 학생운동 또한 대중에 근거하지 않은 쓸데없는 논쟁만으로 서로의 분열을 부채질했던 변혁의 지도관점속에서 학우들의 자주의식에 기반해 분열을 길러지지 못했다.

이러한 기초속에서 운동의 대중화와 통일단결은 우리앞에 나섰고, 운동의 대중화속에서 소모임의 강화·질적 변화는 모색했던 것이다. 이 속에서 문제의식을 느낀 많은 학우들은 소모임 생성과 발전에 힘을 기울이게 되면서 광범위한 소모임 건설 또는 혁신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모임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 지도내용만을 강조하고 소모임 성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하지 못하여 붕괴되는 모습, 무조건적으로 대중에 따라가면서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등의 여러가지 편향이 나타나면서 소모임 건설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 속에서 새롭게 간부들은 학우들의 자주적 진출을 받아안으면서 학우중심의 사고, 대중의 이해와 요구·자주성에 기반한 지도성의 통일을 스스로의 반성속에서 제기하며 새로운 발전들을 모색하는 시기가 지극히 이르러 있다. (이것은 좌면 선거시 자주적학생회가 대중화되었던 모습속에서 일반적으로

자주성에 기초한 인간관부터 확립돼야 주인된 사상의식, 사회변혁의 원동력

해서 말하는 것이다. 소모임은 이처럼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이해관계에 의해 얽히게 조직이므로 지성을 갖는다.

또한, 모임을 작음으로써 그 모임의 수준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가져야만 의존과 예측을 타파하고 자주·자립하는 단위로써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같이 국가보안법, 반공이데올로기가 온존하는 사회속에서는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모든 변혁지향적 조직들의 건설이 어려움을 사정일수록 소모임을 통한 조직건설·토대강화는 대중운동의 발전과 대중적 토대를 굳건히 세우는 것이 현실한 과제에 등장하는 것이다.

2. 노동조합에서 소모임이 제기된 배경

남한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부터 노동운동 내부에 분파하는 소자산계급의 급진주의 이념들이 들어오면서 소수중심의 무모한 투쟁으로 인하여 많은 노동자가 해고되고 노동자의 상층부와 대중을 유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자들의 소모임에서도 침투해 조급한 조직건설로 나타나면서 자기들을 전위라 자처하는 것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습

한 토대를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바로 87년 '우리 일은 우리 힘으로', '사람답게 살아보자'라는 인간중심의, 자주자립의 기운속에서 나의 삶을 내 스스로 개척하라고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주인 의식이 싹튼듯 함께 우리에게 조여왔던 예측과 의존, 작위를 깨뜨리고 서로의 가슴과 가슴으로 삶의 진실들을 요구속에서, 실현시켜내려는 노동자들의 성과속에서 자기 삶의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소모임건설들이 점차적 진행했던 것이다.

3. 학생회에서의 소모임 제기 의 건설

87년 사상적 변화에 의해, 노동조합의 모범적인 투쟁에 의해 소모임의 건설은 학원내에서 88년 이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다. 특히, 89년 공안안과 파국에서 다수의 학우들과 운동하는 사람들의 피리가 심하게 나타나면서 비운동권 총학생회의 특색, 집회장의 썰렁한 학생회의 부분적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는 공안안파라는 객관적 요인이 주동했는가? 그건 그렇지 않았

메이데이의 유래와 의의

메이데이의 의의
메이데이는 매년 5월1일, 전세계 노동자들이 파업과 집회 및 시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힘을 과시하고 노동자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노동자 단결의 날, 노동자 투쟁의 날, 노동자 국제연대의 날이다. 또한 그동안 겪은 투쟁을 기념하고 단결을 확인하는 노동자 축제의 날이다.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파리에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메이데이가 결정되어 1890년에 제1회 대회를 치른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나라에서 이날을 기념해오고 있다. 메이데이는 19세기 후반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서 쉼 일금을 받으며

그러나 경찰과 자본가들은 5월3일 경계를 돌린 노동자들과 충돌시키고 이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총을 쏘아 6명을 살해하게 된다. 5월4일, 경찰의 만행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헤이 마켓광장에 30만명이 모여 항의집회를 열었고 경찰은 또다시 총격을 가해 2백여명을 학살하였으며, 당시 노동운동가 7명을 처형하였다. 이날의 사건은 전세계 노동자들의 가슴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고 투쟁은 또다시 계속되었다. 1889년 7월 세계 20여개국의 노동조합대표가 참석한 국제 노동자대회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정권을 국제적으로 벌일것을 결의하고 5월1일을 전세계 노동자의 날로 선포하였다. 해방후의 메이데이
일제하 '조선노동공제회' '조선노동자연맹'의 투쟁의 맥은 해방이후 3개월만에 1천여개의 노동조합결성, 산업별 노동조합, 그리고 '조선

새 세상 여는 단결과 투쟁의 날

'노동자가 노동을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장시간 노동하던 유럽과 미국의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생취한 노동자의 날이다. 19세기 자본주의
"만약 그대들이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쫓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가난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노동운동을 없애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당신들은 하나의 불꽃을 쫓아야만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앞에서, 뒤에서, 사면관방에서 끊임없이 오고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

중요한 요구였다. 이후 노동자들은 조직과 투쟁으로 8시간 노동제를 쟁취했으나 법적 제도의 쟁취가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주지는 못하였다. 1884년 미국 노동총연맹은 연차총회를 열고 1886년 5월1일을 기해 일제히 '임금감축없는 8시간 노동제확보'를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갈것을 결의했다. 1886년 5월1일
수만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평화시위를 벌였고 노동자들이 노동을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것. 노동자들의 단결의 힘을 보여주었다.

제29회 전국고교생 백일장 작품모집

본사에서는 전국 남녀 고교 문학도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문학의 새싹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29회 전국 고교생 문학 콩쿠르를 개최합니다. 특히 우수한 입상자에게 보고 입학후 장학금이 지급되는 가장 권위있고 전통있는 이 향연에 고교 문학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작품종목
(가) 시·시조:2~3편
(나) 수필:50매 내외(200자 원고지)
(다) 소설:15매 내외(200자 원고지)
■응모요령
학교장(문예반 지도교사)이 추천한 작품을 본사에 제출.
■시상
(가) 각 종목별로 장원 1편, 우수작 2편, 가작 2~3편을 시상함.
(나) 1차 예선(원고심사) 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함.
■작품제출 기간:1991년 5월1일~5월7일
■작품제출처: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26 (우편번호 100-715)
동대신문사

May 1991 5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5월의 문화일력
축제의 계절 5월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모든 것들, 걸쭉한 막걸리 한사발 들이키고 한소리 크게 외치며 모두 날려 버려라!
짧은만큼은 온몸 부대끼며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우리들의 축제 재가차기도 즐겁고 탈춤도 신명난다. 그러나 지성은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부지런히 세미나에 찾아다니며 지식욕을 충족시키고 교정 이곳저곳에서는 불꽃은 토인이 이었다. 그리고 대학은 나이를 먹는다.
본란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련한 소중한 대화행사를 알리기 위해 현대그룹이 제공해 드리는 본란은 여러분들이 보배주는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널리 소개하고 싶은 문화행사가 있으면 현대그룹 문화사(서울 종로구 계동140-2, 전화746-2971)로 알려주시면 성심껏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보도

누가 강경대군을 죽였습니까?

공안통치가 불러온 민중의 죽음

강경대 열사는 우리에게...

○26일 서울에서 '김재진, 이재호연사의 제5주기 추모식 및 반미구국투쟁선포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속보로 강경대군 사형선포식이 전해지자, 강경대-이재호연사 어머니님들은 북받쳐 오르는 설움을 삼키기도.

걸국 반미자주를 외치며 분신한 김·이열사의 뜻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27일 오후 5시 연세대에서 있던 결의대회에서 범국민대책위 이수호(전교조해직교사)씨는 "노태우정권이 들어선 후 교사는 교단을 빼앗고, 노동자는 원전력에서 보여지듯 이혼상자로 죽어가고, 물가폭등·집값상승으로 도시빈민들은 최소한의 삶의 보급자도 잃어가고 있다"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노태우와 한 하늘아래 살 수 없다"고 결의해 열변을 토했다.

○또한 이날 박승철군 아버님은 "내아들에서 끝내야 할 죽음을 또..."라고 울며 "그동안 우리

무엇을 하였던 말인가"하여 숙연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문예일꾼들은 "그날은 오리라, 자유의 뉘오리 살아, 벗이여 고이 가소서, 그대 뒤를 따르니... 반역의 어둠을 뒤집어 새날 새날을 여는구나..."는 노래와 함께 "조국사랑의 길"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도 하였다.

○28일 연세대에서도 불구하고 시신탈취를 대비한 영안실 규합과 각 학교별로 연세대로 모여 선전전을 수행하는 등 결연의 의지가 돋보인 하루였다.

○학생들은 이날 점심시간을 달고 오후 5시 사수대결의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29일 오후 7시 분교 도서편안에서 있던 결의대회에서 강경대군 죽음을 목격한 명지대 한 학생은 "뎀앞에 서는 전투대는 두렵다. 하지만 학원자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맡겨 달라"는 강경대의 뜻에 따

라 연락병을 맡겼는데"라며 "노태우 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경대들이 이같이 투쟁할 것"이라고 해 열변 박수를 받았다.

○29일 연세대에서 있던 범국민결의대회에서 문익환목사는 전남대 박승희(식중독2)양의 분신소식을 듣고 "더이상 죽지 말아라, 살아서 투쟁하라"고 청년학생들에게 당부해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강경대군 죽음의 의미를 역사에 실고, 반미의식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남기고 싶다는 유서로 남기고 남도명 전남대생 박승희(식중독2)양의 분신소식과 강군 살인만행 규탄결의장 옥상에서 떨어진 제주대생 소식을 전해들으며, 노경권의 공안통치가 필연적 결과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 비장하기 되었다.

○실신상태로 응급실과 영안실을 오가는 강경대군 어머니 이복순씨가 아픈 몸을 부추 받으며 나와 "경대야~ 우리경대 대담중해라"고 토해 학생·시민들이 고개를 떨구기도, 이어 어머니는 "결코 강경대는 죽지 않았다. 강경대는 민주주의 깃발을 쫓아"고 말해 학생들로부터

"어머니!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신념의 소리를 듣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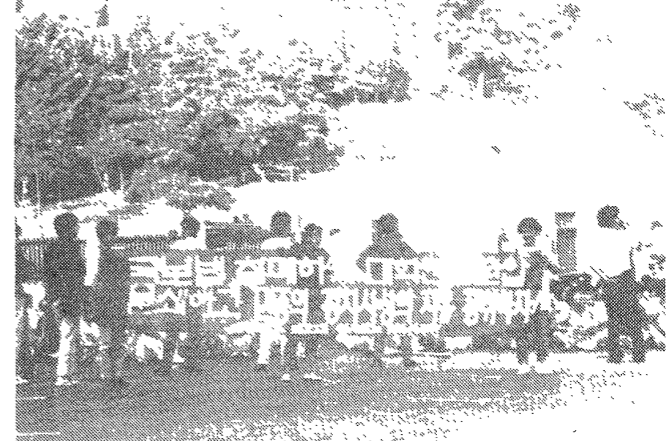
○또한, 집회도중 시신탈취소식이 전해져, 서충원 북부지구 학생들이 규합대로 서는 긴박한 상황이 되기도 했다. 검사측은 지난 28일 시신입수수색영장을 발부해 부검을 실시하라는 등 사전지도도를 위해 발악을 하기도.

○강경대군 죽음을 두고 한국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은 "이제 민예총은 노태우정권타도를 당당히 선언한다!"고 예술인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강경대군 아버지 강민조(50)씨는 "정치를 모르던 내가 아들이 죽자 정치를 알았더라"며 "민주주의 외엔 아들의 뒤를 따라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다짐을 해, 죽은 자식에 의해 의식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성격을 말해 주기도.

○전대협위원장 김중식(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은 "공안통치를 자랑해온 민자당을 해체하지 않으면 민자당 창당일인 5월9일을 민자당 제 망 날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민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대학신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 지난해 90년 10월 서강대에서 열린 대학신문탐방 분석 결의대회

92, 93년의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점차 고당되는 정세속에서 선전선동의 선도적이고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대학신문이 음성화되고 구조적인 탄압에 직면하고 있어 학우대중과의 연대투쟁을 통한 편집자출연 생취투쟁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초 개강과 때를 맞추어 진행된 대학신문탐방원회는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서대기원)내 34개사중 주간교수와의 마찰로 발행지연에서 발간증지등의 직접적인 탄압을 받는 곳이 10여개사에 이르며 그외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주간교수와의 압박을 받는 곳까지 합하면 거의 반수에 가까운 대학신문이 탄압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서대기원의 분석이다.

적년까지의 상황처럼 공안당국이 활발한 활동을 벌인 민개의 주요 신문사를 내사하여 기자연맹 및 구속 등 폭압적이고 직접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 최근이 지행되고 있는 탄압의 양상은 첫째, 간접적, 구조적이고 내부적인 탄압이다. 학교

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안은 대개 80년대 초 폭압적 공안통치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의 문제를 구시대 산물에 끼워 맞추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따라서 각 대학의

개월간 제작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속에서 학생기자들은 호외제작, 전전전, 총학연계등의 투쟁을 해 오고 있다. 현재 대학신문에 가해지는 이러한 대규모적이고 구조적인 탄압은

주간교수와의 마찰로 발행중단 속출

'민주사칙 개정'으로 문제 해결해야

측을 대변하는 주간교수에 의한 탄압은 예전의 수준, 즉 기자들의 글을 토른다는 말로 표현되는 탄압에서 사실적·법률적 근거를 잃어, 수습선발과정 주도, 편집계획 임의변경, 필자 임의 선정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근거로 학교규정 및 사칙을 제시하고 있다. 성신여대 학생회는 특정기사 삽입을 요구하는 주간교수와의 마찰을 시화, 사실적·법률적 근거를 없애고, 사칙을 무효로 선언하여 학생기자 연대투쟁을 요구해와 발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광고대학사 편집자회의의 모토언론에 임의로 수정과 삭제 등 강행해 제작이 중단된 상태

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안은 대개 80년대 초 폭압적 공안통치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의 문제를 구시대 산물에 끼워 맞추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따라서 각 대학의

개월간 제작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속에서 학생기자들은 호외제작, 전전전, 총학연계등의 투쟁을 해 오고 있다. 현재 대학신문에 가해지는 이러한 대규모적이고 구조적인 탄압은

'학생운동'에 불어온 칼바람

시위현장에서 무차별로 벌어지는 백발백중의 경찰의 폭력행위는 '법외의 전쟁' 전포 이후 노골적으로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 이같이 시위진압이 강경일변도인대 무차별적 이면에서도 무분별한 최후방벽하는 필연적으로 중상자를 잇따라 초래하게 했다.

진압경찰은 시위현장을 두르고는 못보는 성격인지 지난 4월에도 영 화상상을 저지한다든 명목에 학내내침탈을 감행했으며 이과정에서 분교 학생들 또한 여러명이 다쳐

머리를 맞아 두개골 혈관 파열상으로 중태에 빠져있으며 20일에는 전남대 최경원(토목 4)군 또한 최후방벽을 열었고 원주군을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주위에서 최후방벽용은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경찰의 총기사용 방침이 내려진 뒤인 지난 2월11일에는 대구 경북대 정근수(자연대 90)군이 경찰이 쓴 38구경 권총에 맞아 오른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아랑곳없이 경찰이 무조건적인 폭력을 서슴치 않고 있어 지난 26일 발생한 명지대 강경대(경제 1)군의 사망은 필연적이었다고 할수 있다. 오랫동안 자행되어 온 노경권의 장기적인 획책과정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혈관 파열상으로 중태에 빠져있으며 20일에는 전남대 최경원(토목 4)군 또한 최후방벽을 열었고 원주군을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주위에서 최후방벽용은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경찰의 총기사용 방침이 내려진 뒤인 지난 2월11일에는 대구 경북대 정근수(자연대 90)군이 경찰이 쓴 38구경 권총에 맞아 오른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아랑곳없이 경찰이 무조건적인 폭력을 서슴치 않고 있어 지난 26일 발생한 명지대 강경대(경제 1)군의 사망은 필연적이었다고 할수 있다. 오랫동안 자행되어 온 노경권의 장기적인 획책과정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혈관 파열상으로 중태에 빠져있으며 20일에는 전남대 최경원(토목 4)군 또한 최후방벽을 열었고 원주군을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주위에서 최후방벽용은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경찰의 총기사용 방침이 내려진 뒤인 지난 2월11일에는 대구 경북대 정근수(자연대 90)군이 경찰이 쓴 38구경 권총에 맞아 오른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아랑곳없이 경찰이 무조건적인 폭력을 서슴치 않고 있어 지난 26일 발생한 명지대 강경대(경제 1)군의 사망은 필연적이었다고 할수 있다. 오랫동안 자행되어 온 노경권의 장기적인 획책과정에

통역로

"그날은 오리라, 자유의 뉘오리 살아, 벗이여 고이 가소서, 그대 뒤를 따르니..."

고 강경대군의 처절한 죽음의 외침을 부어안고 지난 27일 연세대 대학교 정문앞에서 진행된 시화에는 물대포와 지랄탄을 운운으로 막아내며 학생들이 연좌하여 부른 비장한 노래다.

학원자주와 총학생회장 구출을 염원하는 대학에 갖 들어온 신입생이 백골탄에 의해 쇠파이프로 맞아 지난 26일 어둠을 떠날때, 아닌, 국민들이 보는 백주대낮에 처절히 피 흘리며 쓰러져갔다.

신문지평에서 한 젊은이의 죽음이 멀리 예견되었는지 모르나, '광주'를 고향시켜 삼복찬치를 벌여 주님의 무덤위에 선 것이 전두환-노태우정권이다'라고 국민들은 속속이며 애기했었다. 잠시 위장된 민주주의 가면속에서 노태

우정권은 '법외의 전쟁'을 선포, 자신의 구미에 맞지않는 이들의 목을 조여왔던 것이다.

"자, 동지여! 이제는 북수다" 27일 연세대를 찾았을 때 2만여 학생들이 함께 외친 구호였다. 여기저기 붉은 속보소식, 열사의 주검사진속에 "이제는 더이상 국민을 속리지 말고, 민주세력을 죽

평화행진을 시도, 경찰들과 물싸움, 물대포, 지랄탄세례를 뚫고 연대 교문에서 5백미터까지 전진하는 걸사투쟁의지를 보여 주연 시민들의 동감을 얻기도 했다. 이날 대오에서는 이들의 투쟁형태와 다른 투쟁형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기도 했다.

분노의 길

분노의 길은 조그만 차이를 죽여가며 마음으로 걸어야 시퍼런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부독재정권 이후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6공에서는 백주대낮에 민중의 지랄탄에게 맞아죽은 강경대열사.

군이 누워있는 영안실 앞에는 '열사여! 그대 뒤를 따르니, 기필코 우리 손으로 풀겠습니다'라는 구호가 있었다.

학생들의 시위에 손수건을 손에 손에 들고 흔들며 주는 시민들을 바라보며, 4-19를 물고 김주열열사의 부른 노래 강경대열사의 힘찬 노래 함께... 노경권의 허상과 함께...

(양승희 기자)

이들은 박승희양이 교편 친구들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명지학우의 죽음, 약간의 슬픔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사랑하는 용편 식구들에게, 이시대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열사는 필요없고 전사가 필요할 때다.

이 두마디 말이 항상 마음에 남아있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열심히 싸우지 못하고 먼저 떠남을 그 어떤 말로도 사죄를 구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제 길이 2만학우 한명 한명에게 반미의식을 심어주고 정권타도에 함께 힘썼으면 하는 마음에 과하게 떠납니다.

불감증의 시대라고도 하는 지금, 명지대 학우의 죽음에 약간의 슬픔과 연민을 가지다가 다시 제 자리로 안주해, 커피를 마시고 콜라를 마시는 2만 학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발악이라고 하지만 공지에 물린 적들은 앞으로 어떤 탄압을 해줄지 짐작이 갑니다. 이 싸움은 족수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만학우의 손을 차례차례 잡고 열심히 싸워주시지요. 편지

실의 해야할 일이 많은 데 다하지 못하고 남겨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killed 지형이, 용미, 수미, 기형, 인식이 이 일로 충격받고 우리의 길을 함께 하지 않고 옆길로 섰다 하는 것에도 해부됩니다.

91수습위원 아이들이, 나를 대신해 내 료까지 편질실의 주인으로서 힘차게 살아라. 푸, 학기야 너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하다. 외롭고 쓸쓸하겠지만 열심히 생활하고 또 새로 90이 들어오면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살아있으면된다. 무명기의 산세비꽃처럼.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선배님들께 힘되어주는 후배는 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만 지워드리고 떠나는 것겠지만-올해 일정을 흐트러 놓을 수도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살아 남은자의 의무를 다해 주십시오. 먼저 갑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통일진군 47.4.27. 승희.

머리를 맞아 두개골 혈관 파열상으로 중태에 빠져있으며 20일에는 전남대 최경원(토목 4)군 또한 최후방벽을 열었고 원주군을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주위에서 최후방벽용은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경찰의 총기사용 방침이 내려진 뒤인 지난 2월11일에는 대구 경북대 정근수(자연대 90)군이 경찰이 쓴 38구경 권총에 맞아 오른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아랑곳없이 경찰이 무조건적인 폭력을 서슴치 않고 있어 지난 26일 발생한 명지대 강경대(경제 1)군의 사망은 필연적이었다고 할수 있다. 오랫동안 자행되어 온 노경권의 장기적인 획책과정에

수계법회안내

정각원에서는 불기 253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재단 이사장 吳緣園대종사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수계대법회를 봉행합니다.

계(戒)란 삶의 지침이요, 올바른 생활의 근본바탕이며, 가치실현을 위한 正路이자 불교의 이상세계인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동국의 가족 모두가 이번 수계법회에 同參하시어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시고 자신의 귀의처와 삶의 지표를 확립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전개사: 吳緣園 대종사
일 시: 5월 16일(목) 오후 2시
장 소: 정각원 대법당
대 상: 전 동국인
수계접수: 5월 1일~5월 10일
접수장소: 정각원 사무실, 불교학생회

TEL: (직통) 268-2314, 구내 3321번
불기 2535년 5월 1일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합장

현역병 적체에 따른 병무 행정 안내

1. 현재 재학생 연기 중에 있는자가 입영원을 제출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1~2개월내에 징병 검사를 받고 군입영계획 범위내에서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에 입영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91년도 현역병 입영계획 변경과 입영원(휴학자) 출원자등이 과다 발생하여 현역입영 대상자의 적체현상이 심화되어 입영이 지연되고 있음.

2. 따라서 입영원(학번자)을 출원한 사람은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할수 없게 되므로 '91년 3월19일 이후 입영원(학번자)출원자는 '91년도 현역병 입영이 곤란하므로 입영 희망 시기를 92년도에 입영원을 출원하기 바라며,

3. 이미 입영원 출원자는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에 입영이 곤란하므로 반드시 입영 통지서 수령후 휴학하기 바람.

학 생 처 장

푸른 산빛 속으로

문을 모든 것 떨쳐버리고 푸른 산빛 속으로 떠나고 싶다 그러나 내기 짐작 떠나야 할 것은 먼길한 이 도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의 불분명상 내가 가야 할 곳은 푸른 일색 무성한 숲이 아니라 본래의 나 자신일뿐...

산빛 속으로 -

받은을 이룬 저자의 스승 백성옥 선생(1897-1981)의 수행에 관한 구체적 조언 '무심해 내려지는 스승의 탁발' 속에서 진정한 해로 자자 자신의 생생한 수행과정 이글을 읽는 내 가슴에 새로이 열리는 내에게로 이르는, 질주하는 마음의 산길

80년 증대/개정증보판

다들 마음 밖은 마음

글. 김재웅
국판/296면/값 3,800원
도시출판 문화
☎ (02)742-0172/(0562) 61-2231
보급처/도서출판 서연
☎ (02)924-7399, 7400

사회기획

누가 강경대군을 죽였습니까?

가상·직·설정, 계획된 긴장고조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

결프전 이후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자신하는 미국은 그들의 국가이익 유지와 확대를 위해 한반도와 관련한 정책에서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정세의 방해요인으로 '지역분쟁의 위험'을 내세우며 군축무드를 잠재우고 군사주의를 부추기는 데서도 보여지지만 또한 한반도내에서 조금씩 제기되는 군축·평화호흡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 분명하다.

결프전 이후에 나온 미행정부의 일련의 입장과 정책들, 예를 들어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따른 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거부, 한국군 증강과 함께 신무기 도입에 의한 현대화 계획, 한반도와 중동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으로 분류하면서 핵무기화확무기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은 채 1백20일의 중기전쟁을 가상하고 있는 전쟁시나리오, 또한 2천년대까지의 주한미군 주둔발안들은 미국의 일방적 독단성과 유류과는 다른 냉전식 대결구도를 그대로 온존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이 이처럼 독단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을 수 있는 정책은 한국민의 손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이익과 필요'에 따라 미국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민 뜻 거스른 '비핵화 반대' 발언

지난 3월6일은 솔로몬 아·태평양 차관보는 "충분한 반대급부없는 상태의 비핵지대화 방안은 현재의 인보체제와 해 역력을 저해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제안한 바 있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이 발언은 현재 북한에 대한 핵안전협정 가입 압력이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소련, 일본등의 협정 가입을 지지하고 있는데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관련 3월13일 리스카시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도 주목된다. 그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정보회에서 "남한이 이번 전쟁에서 위력이 입증된 무기장비들을 구입할 계획"이라며 한국군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발언이후 페트리엇 미사일 구입설, 신형구축함 건조종이 보도됐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그간 탈냉전의 흐름속에 묻혀있던 냉전주의가 '군현대화'라는 미명하에 한국군의 군비증강의 정당성을 굳히려 한다



여기에 얼마전 이종구국방장관이 엔테베식 작전의 북한용병발안은 한반도의 긴장을 관념에서 현실로 돌려놓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살펴볼 때 미국의 '힘의 우위'의 정책이 한반도에서 '냉전주의'와 맞물리며 본 궤도에 들어 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대한 우리의 대응은 평화군축운동의 결집에서부터

결프전 이후 북한 자극 발언 줄이어 핵사찰 내건 '제한 된 전쟁' 계획 마련돼 불가침 선언등 평화운동 전개할때

으로도 그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미국의 정권을 쉽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최근들어 유달리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개발, 핵시설과 관련된 문제들은 증등과 비교를 하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주한미군사령관의 중요성에서 '2천년대'는 훨씬 지나서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칼 포드 미국방부 수석 차관보의 발언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가령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지상군병력과 전투체제에서 이라크의 비슷한 점이 많다"며 "개발된 스커드미사일과 다량의 생화학 무기의 위험도 보인다"고 주장하는 것. 또하나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이 이라크보다 3-5년 빠르다"고 밝힌 점들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이러한 무모스러운 발언들은 한반도와 중동, 북한과 이라크의 비교를 통해 한반도 주변의 찬바람부는 긴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실제 두 전쟁과정을 살펴보면 스커드가 발발하기전 통일문제에 관한 위기가 있었다. 당시 한국이 '애초에 사인'의 범주에서 제외된 것처럼 결프전의 경우 쿠웨이트에 대한 미국의 방위외사가 없음을 공인한 점 스물함에 빠진 미국내 경제상황의 타개책이 필요했다는 것등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전쟁위험 제일 커' 미국이 결프전에서 입증한 증강도전략의 주된 대상인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적절한 위기의 창조 '전쟁' 지금 많은 평화운동가들은 결프전쟁과 한국전쟁을 비교하며 '미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필요이상으로 강조하고, 북한을 이라크와 비교하면서 새로운 전쟁의 구실을 찾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다.

리스카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웃나라의 침략은 저지하는 미국의 의지를 북한의 결코 간파하지 못할 것"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자위적 선제공격'의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한반도가 세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는 낙슨 전 대통령의 TV대담을 담은 한반도에 흐르는 긴장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에 남한 당국도 한류 가세, 최순환 통일원 장관이 북한에 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80년 이후 수많은 선도투쟁을 통해 이제 반미투쟁은 일부 선각자만의 투쟁이 아닌 전 민중의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서는 전국각지에서 솟아오르는 반미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이들이 농성을 기지정문에서 벌이자 한국경보측에서 새로이 모집한 경비원들이 미군버스에 승차, 부대안으로 들어간다가,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에게 도끼자루를 휘두르고 심지어 11월 21일 새벽에는 미군들이 탱크를 불고나와 농성장을 짓밟아버리는 등 파업을 막기위한 탄압은 계속되었다.

용노무자들이 쟁의를 일으킬때 냉각기간을 70여일로 설정, 파업 자체를 불법인수 밖에 없도록 되었는가 하면, 군남수출에 관한 법에 따르면 상공부에 등록허가된 업체만이 군납을 할수있도록 돼있는데도 한미행정에는 미등록업체까지 군납을 할수있도록 규정, 과다영양에 의한 덩핑을 조장하고 있다.

싸워야 할 상대는 회사가 아니라 그를 조종하는 미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용역업체 회사만이 나쁜 놈들인 줄 알았죠. 그러나 파업과정에서 미군측이 회사측의 구시대동원을 도와주고 심지어 우리에게 도끼자루로 때리는 것을 본 후에는 진정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미국놈들 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탱크까지 동원, 파업을 해산시키려는 미군놈들을 보며 전조합원들의 분노가 격해졌습니다. 나이 50대에 들어선 사람들이 부대정문을 때려부수고 경찰서·한미야전시령부에 정물을 던지게 했습니다. 누가 시킨것도 아닌데 미군들의 횡포를 보자니 자전 스텝에 이뤄지게 됐죠. 당시 전 조합원들은 미군들이 용역업체를 시켜서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군 기지 경비원 최 해근씨

부유한 나라, 우리를 돕는 우방국이라는 생각만 있었죠. 그런데 지난 파업과정에서 미국은 저에게 있어 '돈버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제자신도 정말 많이 변했죠"라며 최씨는 TV에서 학생들이 테오하고 반미구호를 외칠때마다 반감을 마음이 든다고 말한다.

돈버는 일이라면 희유와 폭력,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더군요

설정, 경비원들에 대한 저임금을 구조적으로 만든 것입니다"라며 최해근씨는 "미국놈들의 폭력은 도끼자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한미간에 체결된 '전시주둔국 지원협정'에 따르면 미군기지와

'핵안전 협정'이란 무엇인가

핵안전협정(AEA)은 1956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고 군사적 전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IAEA의 창설은 핵분열에 관한 지식을 모든나라로 확대하고 원자력 평화이용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원자력기술의 확산과 원자력산업을 둘러싼 시장쟁탈전이 개시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핵기술이 확산되어 새로운 핵병기국이 등장하면서 미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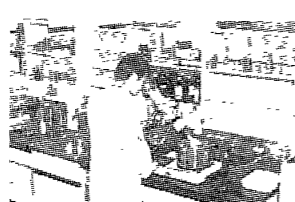
소련등이 핵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제동장치를 마련하는데 이해를 같이해 70년 핵확산방지조약(NPT)이 발효된다.

핵 폐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없는 모순을 안고있다. 따라서 이 체계가 핵병기보유국 중대의 규제를 빌미로 비핵병기국의 핵활동에 대한 주성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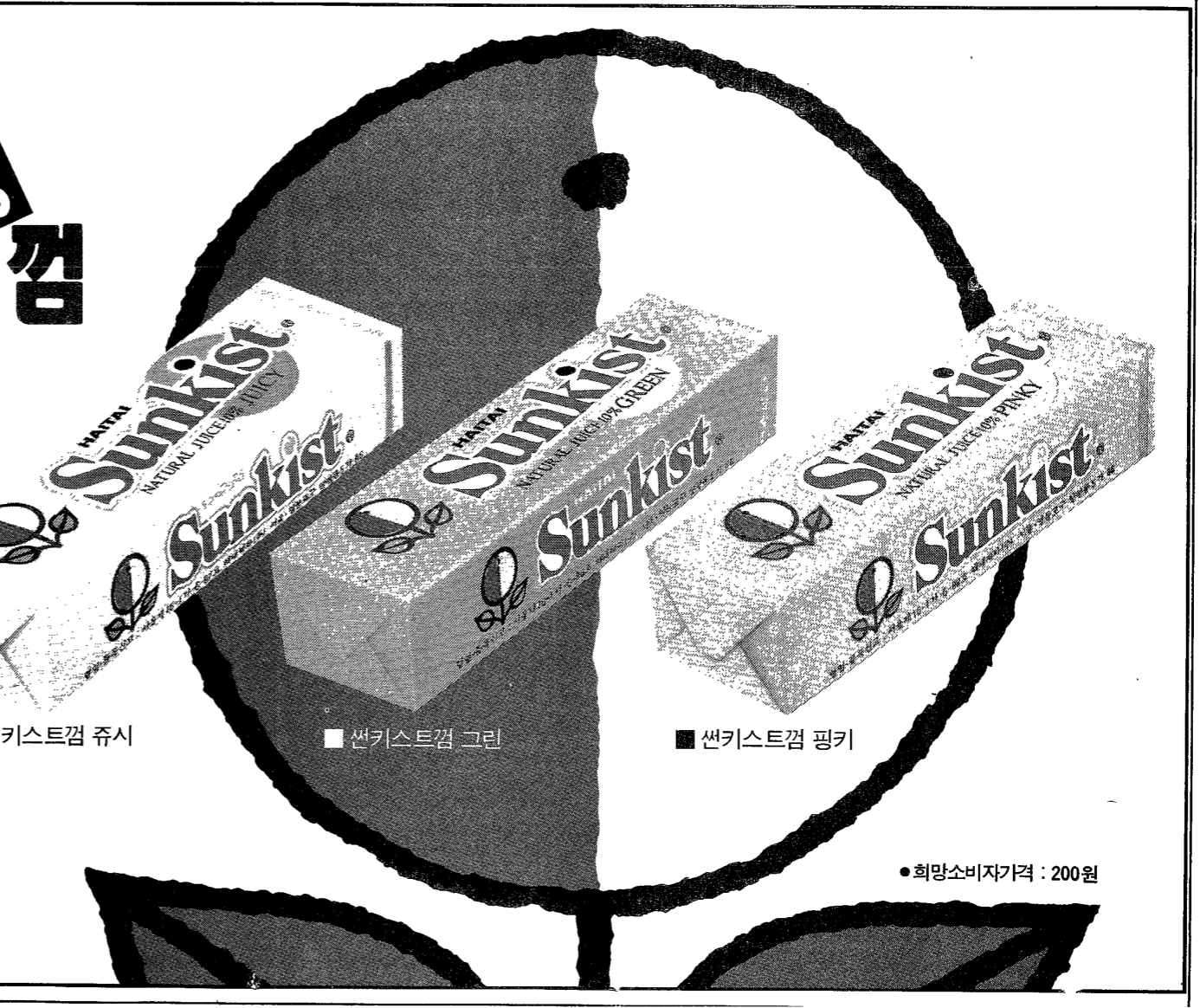
그러서 비핵병기국들은 NPT가입 시 서명 핵병기국이 비핵병기국에 대한 핵 불사용의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미국과 소련은 이를 일관되게 거부하여 왔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북한뿐만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등 37개국 이 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했으면서도 핵안전협정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NPT 체제는 핵병기 보유국의 증대는 규제하고 있으나 기존 핵보유국의 핵개발과 타국으로의

해태점 35년 기술로 탄생시킨 - 국내최초의 천연과즙 10% 썬키스트점!



1956년 이맘에 처음 감문화를 심은 해태점 - 풍선껌에서 썬키스트, 노노점, 아가사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해태점이 35년의 기술로 드디어 점의 천연과즙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점, 우리가 찾던 점 - 국내 최초 천연과즙(Natural Juice) 10%, 느낌 100%의 해태 썬키스트점. 향으로 맛을 낸 껌이 아니라 천연과즙으로 맛을 낸 '썬키스트점'은 껌의 새로운 문화가 될것입니다. *썬키스트점의 탄생에 기념, 소비자-점주 여러분을 위한 대대적인사는 전지가 열립니다.



해태제과

희망소비자가격 : 200원

생활문화

누가 강경대군을 죽였습니까?

세계노동절 102주년 기념시

공단변 진달래

서른 한 해, 한 해도 거름없이
황사바람은 불어
공단변 개천가 뚝방에 핀
진달래 꽃무리를 흐트러뜨렸다

황선미

(문과대 국민윤리학과)

회사 정문앞, 복직투쟁의 몸부림은
피투성이 찢긴 작업복으로 되돌려지고,
동지들의 피멍든 얼굴마다에
황사바람만 후려갈긴다

숨막히는 기계소리
먼지 속에 파묻힌 작업현장엔
거침없는 백바소리 고동치고,
'구속동지석방, 91임투 승리쟁취'
공정당백 깃발을 보며
들끓는 가슴가슴은, 끈끈기려를 걸는다

황사 속에 진달래는 눈부시게 붉고
지침없는 우리들 가슴 가슴에
꽃무리로, 스며들었다.



문예운동탄압지와
'91임투승리를 위한
노래판곡 '해방맞이'

세계노동절 102주년기념 문예운동탄압지와 '91임투승리를 위한 노래판곡 '해방맞이'가 열린 한양대 노천극장.

'지난17일 전국 총·학생회의에서 사건화가없는 외부단체의 행사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이유로 27·28일 해방맞이 판곡을 불허하는 학교당국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자주 의터전 애국한양 총학생회

게시판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대자보는 문예운동탄압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민중문화를 감당하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만 했다.

그러나, 27일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연좌농성과 뜨거운 원호속에 공연을 사수한 결과 28일에는 훨씬 많은 3천5백여명이 모여 노동운동탄압과 문예운동탄압에 대한 투쟁의 결의를 도왔다.

관중들은 공연전 밤을 건너자는 등의 흥미있는 율동과 함께 '노가리타령'을 힘차게 부르기도 했다.

이이 진달래꽃 뚝방 떨어져 울날리는 장안한 4월에, 지난26일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강경대군과 해방의 그날 만나길 기원하며 추모목숨을 올렸다.

그리고, 지난 4월3일 서울노동자 문화예술단체협의회 대표 박인배씨 구속이후 석방투쟁을 가결하게 벌여온 민중·민중의 노래 민요연구회, 삶의노래 예술팀, 노동자노래단 이 나와 건강한 노동자삶을 그린

"풍자성 판곡으로 노동해방 염원"

'월급날', 노동속에서 서로 아껴주며 지쳐 쓰러져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노동자의 모습을 묘사한 '우리들의 사랑은', '대머리나 노가리나 그놈이그놈...'으로 이어지는 6중미리를 풍자한 '뚝갈아 뚝갈아' 등을 불렀다.

신명나는 풍물이 가미된 이 노래들은 시민·학생들에게 쉽게 불려져, 보고있을수 만은 없게하는 흥을 들구는 가리였다.

중물매 터울림에서는 노동운동탄압배경설을 쇠와 장고, 북등에 담아 관중들로 하여금 '타도 노태우'와 "노동해방"을 외치게 하였으

을 그린 것으로, 율동 임금인상투쟁에서 꼭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시민·학생들에게 불어넣어 주었다. 관중들은 하나된 목소리로 공연의 주제가 되어 "이 더러운 놈들이 우리 민중을 깔보고 짓밟으려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수 있겠단 말인가. 투쟁!"을 외치기도 했다.

공연자만의 무대를 탈피하고 관중들과 어울려 노천극장 전체를 흥자와 웃음으로 가득차게 하는 '굿판'이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햇볕을 높이올려 전대협, 전노협 진군가를 부르며 밤이 깊을수록 새벽의 빛을

참가하였다. 임진택 민예총사무처장은 "문예운동탄압 노동운동탄압 노태우정권 타도하자"를 외치면서 삭발결의를 밝혔다.

잘라나가는 머리칼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눈에 띄었으나, 이들은 어깨동무를 하며 감상의 눈물이 아닌 뜨거운 동지애로 함께 투쟁에 임할것을 굳게 다짐했다.

현재 문예운동탄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율동법적용을 통한 박인배씨 구속, '어머니 당신의 아들' 상영저지,

문예운동탄압에 맞서 재야인사7명 삭발식가져

노동자들의 '91 임금인상투쟁승리 위한 한판곡 벌여

머 가장 뜨거운 박수를 받으면서,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총진군의 내용을 지닌 판곡 '해방맞이'의 무대로 이어졌다.

이 판곡은 수서비리, 가솔수사건, 공권력으로 밀어부치는 현정권, 고르비방한, 우르파이 라운드, 독재제벌의 매질매식으로 인한 몰가상승,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강요하는 개별기업들 민중의 삶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거대한 손'을 하나된 힘으로 물리치는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

관란하듯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의 빛을 발할것이라는 믿음에 힘차게 전진해 나갔다.

한편, 이날 백기완씨가 초청돼 "강경대군을 죽인 노태우정권은 반드시 물러나야할 것"이라며 투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 전날 있었던 '해방맞이' 공연원천봉쇄를 계기로 살인정권규탄및 문예운동탄압을 저지하는 삭발행의 공연이 있었다. 이 행사에는 문로 민예총대변인을 비롯한 7명이

'태백산맥'내용 재심신청동의 탄압에 이어 지난17일 외부행사 고나 불허방침에 의한 '공연' 탄압에까지 이른 상태이다.

이에 27·28일 양일간 있었던 '해방맞이' 공연시수는 어떠한 문예운동탄압이래서도 민중문화에 대한 갈망은 사그러들지 않으며, 문예운동탄압저지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계기가 된것이라 하였다.

(이경애 기자)

동학의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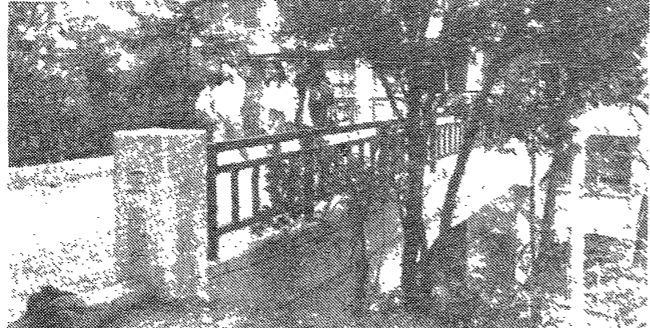
정 각 교

해화관4층과 교수회관을 직통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다리. 동학의 많은 학우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이 다리를 건너 다니지만 이 다리의 이름과 역할 등에 대해 생각해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만약 이 다리가 없다면...'이라고 생각해보는 사람은 또한 몇이나 될까.

정각교(正覺橋). 해화관과 교수회관, 본관을 직접 연결, 통근거리를 짧게 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여론에 따라 김생빈교수(공과대 토목공학과)의 설계로 1977년 6월20일 해화관4층과 교수회관을 연결하는 폭 3.5미터 길이 20미터의 다리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정각(正覺)'이란 바르게 깨닫는다는 뜻으로 불교의 '괴로움의



멸(滅)에 이르기 위한 실천사항인 8정도에 바탕을 둔 깨달음을 말한다.

8정도는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의 여덟가지 실천사항을 가리킨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마음먹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일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기억하여 생각한 바를 잊지않고, 바르게 집중하여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단순히 실용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다리를 지나는 동국인이 부처님의 교설을 깨닫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 다리가 세워졌다면 더욱 좋은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일에 파묻혀 바쁘게 지내는 날 속에서도 하루에 한만큼 정각교를 지나면서 정각(正覺)을 해볼 수는 어떨는지.

(문화부)

부처님 오신날 기념공연 '사문의 뉘'

극단바람에서는 부처님 오신날 기념공연 1991 석가모니전 '사문의 뉘'를 공연한다. 현정스님 원작의 이 작품은 사문을 둔 어머니, 사문의 아내가 위은 삶의 방식을 우화적으로 그려낸 수채화같은 작품이다.

·일시:오늘(1일)부터 5일까지 오후4시, 7시(매일2회)
·장소:국립중앙극장 소극장
·문의:299-0246

'한밤의 북소리' 공연 5월 한달동안

극단 우리극장에서는 4년만에 귀향한 전성포로 크라글라와 신홍희 빌로 부상한 무르트가 안나라는 약혼녀를 놓고 벌이는 일종의 멜로드라마 '한밤의 북소리'를 공연한다.

·일시:오늘(1일)부터 5일까지 오후4시, 7시(매일2회)
·장소:국립중앙극장 소극장
·문의:299-0246

극단전망 '가솔수사건' 공연

극단전망에서는 현대부부의 애정관이 안고 있는 심각성을 강하게 시사한 '가솔수사건'을 공연한다. '가솔수사건'은 가정극으로써 작가를 넘어서로 된 아내가 남편의 소설에 의욕을 품고 그 내용이 허구인사 사실

·일시:오늘(1일)부터 31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오늘 낮공연 없음, 월요일은 휴관)
·장소:대학로극장(동숭동 대학로)
·문의:762-7859

극단전망 '가솔수사건' 공연

극단전망에서는 현대부부의 애정관이 안고 있는 심각성을 강하게 시사한 '가솔수사건'을 공연한다. '가솔수사건'은 가정극으로써 작가를 넘어서로 된 아내가 남편의 소설에 의욕을 품고 그 내용이 허구인사 사실

·일시:오늘(1일)부터 31일까지 평일-오후3시, 토·일-공휴일-오후3시, 6시(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장소:보림소극장
·문의:569-4211~3

세계노동절 102주년기념 노동자 문화예술제가 지난 2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한국민중예술인 총연합회 노동예술위원회의 주최로 열린다.

노동자·골리아·크레인
·일시:오늘(1일)부터 31일까지 평일-오후3시, 토·일-공휴일-오후3시, 6시(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장소:보림소극장
·문의:569-4211~3

노동자·골리아·크레인

·일시:오늘(1일)부터 31일까지 평일-오후3시, 토·일-공휴일-오후3시, 6시(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장소:보림소극장
·문의:569-4211~3

노동자·골리아·크레인

·일시:오늘(1일)부터 31일까지 평일-오후3시, 토·일-공휴일-오후3시, 6시(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장소:보림소극장
·문의:569-4211~3

노동자·골리아·크레인

·일시:오늘(1일)부터 31일까지 평일-오후3시, 토·일-공휴일-오후3시, 6시(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장소:보림소극장
·문의:569-4211~3

노동자·골리아·크레인

·일시:오늘(1일)부터 31일까지 평일-오후3시, 토·일-공휴일-오후3시, 6시(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장소:보림소극장
·문의:569-4211~3

노동자·골리아·크레인

·일시:오늘(1일)부터 31일까지 평일-오후3시, 토·일-공휴일-오후3시, 6시(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장소:보림소극장
·문의:569-4211~3

노동자·골리아·크레인

·일시:오늘(1일)부터 31일까지 평일-오후3시, 토·일-공휴일-오후3시, 6시(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장소:보림소극장
·문의:569-4211~3

노동자·골리아·크레인

·일시:오늘(1일)부터 31일까지 평일-오후3시, 토·일-공휴일-오후3시, 6시(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장소:보림소극장
·문의:569-4211~3

노동자·골리아·크레인

·일시:오늘(1일)부터 31일까지 평일-오후3시, 토·일-공휴일-오후3시, 6시(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장소:보림소극장
·문의:569-4211~3

노동자·골리아·크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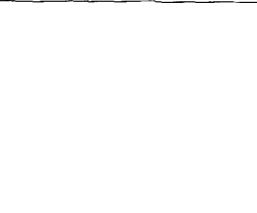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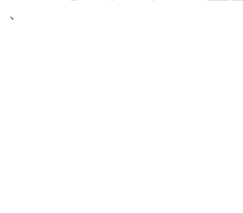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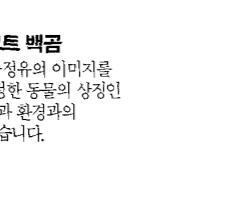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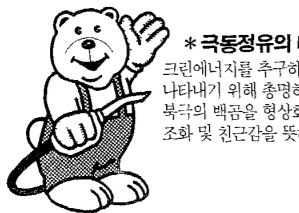
·일시:오늘(1일)부터 31일까지 평일-오후3시, 토·일-공휴일-오후3시, 6시(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장소:보림소극장
·문의:569-4211~3

노동자·골리아·크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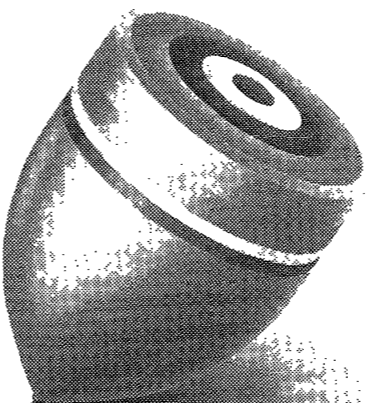
·일시:오늘(1일)부터 31일까지 평일-오후3시, 토·일-공휴일-오후3시, 6시(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장소:보림소극장
·문의:569-4211~3

노동자·골리아·크레인

·일시:오늘(1일)부터 31일까지 평일-오후3시, 토·일-공휴일-오후3시, 6시(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장소:보림소극장
·문의:569-42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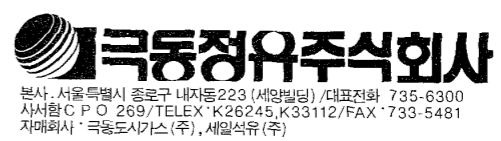
"쳐라, 쳐라, 끝까지 쳐라!"



극동정유 정이사의 책상에는 책다른 그림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팽이 - 이 팽이그림은 그에게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28년전 국내외적으로 몹시 어려웠던 시절, 극동정유 부산공장을 세울때부터 이 그림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지금사정은 말할 수 없이 쪼달리고 외국차관도 거의 조달이 안되는 상태에서 순수한 우리자본만으로 출발한 공장 건립은 이만 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석유산업 민영화는 처음으로 회사의 창립멤버라는 보람으로 이겨내기엔 난관도 대단했습니다. 실개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자체기술과 인력으로 해결해가는 와중에 토사가 무너져 인부가 다치고 '풍랑으로 하역중의 자재가 때때로가 모두가 실의에 잠겼을 때,

그는 말없이 책상머리에 이 팽이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모습과도 같은 팽이는 그에게 실재없이 채찍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쳐라 쳐라 끝까지 쳐라!"

이제는 안정감있게 돌아가는 팽이처럼 회사의 기분이 탄탄해진 지금, 정이사는 자신의 무기력과 나태를 채찍질한 것은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이 한마디였다고 털어 놓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일하라 일하라 끝까지 일하라."



극동정유주식회사
본사: 서울특별시 용문구 내자동223 (새원빌딩) / 대표전화 735-6300
서울호남 P.O. 269 / TELEX K26245, K33112 / FAX 733-5481
지재회사: 극동도시가스(주), 새원석유(주)